

2012년 역사문화탐방

2012년 영남지역 유적에 찾아가는

1기 2012.11.10. (토) 08:00~18:30  
2기 2012.11.24. (토) 08:00~18:30

모집대상 대구지역 거주 누구나

모집인원 70명 선착순 모집  
(1기 35명, 2기 35명)

모집기간 2012년 10월 12일(금)~2012년 10월 25일(목)

일정 대구출발-부산 복천동고분군과 복천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수로왕릉-봉황대유적-  
회현리패총-대구도착

참가신청방법 영남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로 접수  
홈페이지-www.ynicp.or.kr  
메일-ynicp8087@hanmail.net

참가비용 1인당 20,000원

문의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기획과  
전화 : 054) 971-8087



2012년 역사문화탐방

## 「금관가야인의 터전을 찾아서」

### 참가자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역사문화탐방 「금관가야인의 터전을 찾아서」를 함께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 ◇ 참가대상 및 인원

- 참가대상 : 대구지역 거주 누구나 가능(개인, 가족단위)
- 모집인원 : 70명(1기-35명, 2기-35명)

#### ◇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 모집기간 : 2012년 10월 12일(금)~2012년 10월 25일(목)
- 모집방법 : 영남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선착순 접수)

**E-mail : ynicp8087@hanmail.net**

#### ○ 참가자확정통보

2012년 10월 26일(금) 개별통보 및 영남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 참가신청자가 20인 미만 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참가비용

- 참가비용 1인 20,000원(점심 및 간식, 여행자보험가입, 자료책자, 기념품 제공)
- 참가비는 일정 확정 후(2012년 10월 29일) 납부하실 수 있도록 연락드립니다.
- 참가비 납부기간 : 2012년 10월 30일(화)~2012년 11월 2일(금)
- 참가비 환불 규정
  - 답사 일정 이틀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2일전에서 출발전까지 취소 시 90% 환불, 답사 출발후까지 연락이 없으면 70% 환불함.

◇ 답사 일정

- 일 정 : 1기 - 2012년 11월 10일(토요일) 08:00~18:30  
           2기 - 2012년 11월 24일(토요일) 08:00~18:30
- 지 역 : 금관가야권(부산·김해지역)

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분)	내 용	비 고
08:00~08:10	10	제1집결지 - 칠곡 강북지구대 맞은편 함지노인복지관 앞)	
08:20~08:30	10	제2집결지 - 동서변동 무태성당 앞	
08:30~10:10	100	이동(대구→부산)	
10:10~11:20	70	부산 북천동고분군 및 북천박물관	
12:10~13:10	60	점심(김해)	
13:10~14:10	60	국립김해박물관	
14:20~14:50	30	김해 대성동고분군	
15:00~15:30	30	수로왕릉	
15:40~16:50	70	봉황동유적, 회현리 패총	
16:50~18:30	100	이동(김해→대구)	
18:30~		해산	

집결지 안내지도



## ◇ 답사지 소개

### ▶ 부산 북천동고분군·북천박물관



북천동고분군은 6세기 이전 지배층의 무덤으로 번성했던 가야문화와 가야가 신라로 편입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동래 마안산 중심부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은 구릉 위에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으며 80~100m 폭에, 길이는 약 700여 미터에 이른다. 목관묘 5기, 목곽묘 92기, 옹관묘 4기, 수혈식 석곽묘 63기 등 모두 16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으며 그 안에서 2,500여 점의 토기와 철제 갑옷을 비롯한 금속기류 2,700여 점,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류 4,000여 점 등 모두 6,9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북천박물관은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북천동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 중 1,9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1전시실에는 삼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과 삼국시대의 토기 문화를 알 수 있는 여러 향아리와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가야 멸망 이후 부산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유물과 목곽묘, 수혈식 석곽묘의 축소 모형을 전시해 놓았다. 제2전시실은 장신구와 농기구, 외래계 유물, 일본의 가야계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인접 지역의 출토물과 비교하며 대외교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문화권의 유물을 집대성하여 시대별 문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문화의 이해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건립된 고고학 전문박물관이다.

건물 전체를 검은 벽돌로 외장하여 철광석과 숲의 이미지로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Ⅰ실과 전시Ⅱ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시Ⅰ실에는 울산 검단리 마을유적과 창원 다호리 1호무덤의 모형이 있



고, 가야 문화의 기반이 되는 선사시대와 변한 및 전기 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 유물이 총망라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각 지역별로 형성된 가야 문화의 독창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 ▶ 김해 대성동고분군

사적 제341호로 이 고분군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고분군으로서 구지봉(龜旨峯)과 회현리패총의 중간지점, 수로왕릉(首露王陵)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2세기경부터 6세기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덤지역으로 사용되었다. 거대한 무덤은 전망이 좋은 구릉의 정상부에 아래에서 위로 열을 지어 조영되었다. 그러나 작은 무덤은 구릉의 사면에 무질서하게 만들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지배집단의 무덤 자리로 고인돌을 비롯하여 토광묘, 목곽묘, 횡혈식석실묘 등 가야의 여러 형식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3~6세기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4~5세기에 번영한 금관가야의 옛 터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목류, 중국제 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 고대무덤 형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중국제 거울이나 토기류에서 한·중·일의 문화교류 상황을 밝혀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 수로왕릉

가야의 여러 나라 중 초기에 세력을 형성했던 가락국, 금관가야의 시조가 바로 김수로이며, 수로왕릉은 그의 무덤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서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구간이라 불리는 아홉 부족장이 있던 시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황금알이 담긴 금합이 내려왔고,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일 만에 자라 어른이 되어 왕위에 올랐다고 전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수로왕이다.

수로왕릉은 원형봉토분이다. 1580년(선조 13) 영남관찰사 허엽(許曄)이 왕릉을 수축하여 상석·석단·능묘 등을 갖추었고, 1647년(인



조 25)에 가락국수로왕릉(駕洛國首露王陵)이라 새긴 능비가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수로왕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다고 전한다. 능의 전면에는 가락루·연신루·회로당 등의 건물이 있다.

▶ 김해 봉황동 유적(회현리패총)

김해 봉황동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당시 김해읍 회현리(會峴里))에서 발굴된 조개더미 유적이다. 흔히 김해 패총(金海貝塚)으로 불린다. 패총은 조개껍질과 생활 쓰레기가 함께 버려져 쌓여 있는 곳으로, '조개더미'라고도 하며 당시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장소이다.



회현리패총은 1907년 이마니시(今西龍)의 조사 이후 1920년과 1934~1935년에 걸쳐 일본 학자가 매장지를 조사, 발굴하여 조개더미와 같은 성격이 드러났다.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 뼈·뿔도구, 석기, 가락바퀴, 탄화미(炭火米), 중국 화폐인 화천, 동물뼈 등이 나왔다. 토기는 적갈색이나 회청색을 띠며, 사슴뿔이나 뼈를 가공해 만든 칼자루가 많다. 탄화미은 고대의 쌀과 농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화천은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기원전 14년에 만든 화폐로 유적이 형성된 연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중국과의 왕래도 짐작하게 한다.

조개더미의 동쪽에서 고인돌, 항아리에 뼈를 넣었던 독무덤(옹관묘), 집터가 발견되었다. 무덤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2월 5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경남문화재자료 제87호)와 합쳐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지정되었다.